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3년 12월 18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담당자	• 도시균형지원담당 조소영 ☎440-4441 • 담당자 안계형 ☎440-444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내년에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성과 극대화에 주력

-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균형발전 속도 -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원도심 주거정비·도시 숲 조성 등 지속 추진 -

인천시가 2024년에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도 궤를 같이하는 전략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2024년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인천대로 일반화 ▲원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시민체감 공원·녹지 조성 등 2024년 중점 사업 추진계획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개편(2022.7.28.)과 민선8기 원도심 활성화 공약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도시재생과 행복마을 가꿈사업 등 기존 재생사업 안착과 더불어 공공주도의 원도심 역세권개발 등 새 정부의 주거 재생 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

우선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에 대한 연차별 국가 공모 참여 계획을 마련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64개 역세권의 여건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3개 역세권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제물포역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는 청년 및 스타트업 창업 유도,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기획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앵커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구성된다.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전 구간 착공, 사업성과 가시화 기대

2024년에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올해 5월 인천 기점~독배로 구간 본공사가 착공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독배로~주안 산단의 도로 개량공사와 연말 잔여 구간인 주안 산단~서인천나들목 지하도로 공사 등 2024년 인천대로 전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으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의 도시환경과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원도심 주거 정비 활성화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위해 2023년 2차례에 걸친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33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 사전 컨설팅과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총 16개 구역)과 행복마을 가꿈사업(10개소), 집수리 지원 사업(300세대)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빈집정비사업 추진과 제2차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시 숲 조성·공원 확충 통해 녹색도시로 변신

시는 친환경 도시 숲 조성 and 단절된 녹지 축 이음을 통해 도심 내 기후조절은 물론, 소음저감, 대기 정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숲 20개소를 조성하고,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가로수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약자 및 고령층이 안전하게 숲길을 등반할수 있도록 2.4km 무장애 둘레길과 35.5Km 숲길(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인 계양 공원 등 16개소를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내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연희공원 등 12\*개소의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다.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생활권 내 공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문화, 자연 유산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다양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공원, 함봉, 십정, 새별, 희망, 맑은내, 검단17호, 원신, 연희, 검단15호, 도릉농, 동곡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지역 외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여 시민체감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수도권 대표 세계적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에 인천공원페스타를 개최하고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하여, 2024년에는 국토부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